

북한 '구전문학' 연구 초점의 변화와

김광조 『조선의 민속설화』

김시연*

〈차 례〉

1. 들어가며
2. '조선민속학'의 성립과 '구전문학' 연구
3. 2000년대 이후 민속학 연구 초점의 변화와 김광조의 『조선의 민속설화』
4. 나오며

〈국문초록〉

이 글은 북한의 민속학과 문학 연구의 흐름 속에서 '구전문학' 연구 초점이 변화해온 양상을 추적하고,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저작으로서 김광조의 『조선의 민속설화』(2015)를 검토한다. 북한의 구전문학 연구는 1950-60년대 '조선민속학'이 역사학·고고학적 관점을 위주로 성립된 배경 아래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민속학'과 '조선문학'의 영역 구분이 뚜렷해지면서 '구전문학'에 대한 논의는 민속학에서 문학으로 영역이 옮겨져 2000년대까지 문학 차원에서 주로 다뤄지게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는 문학 영역에서 '구전문학'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양상은 드러나지 않고 다만 작품을 리라이팅한 대중적 출판물만이 발견될 따름인데, 오히려 민속학 영역에서 새롭게 설화와 전설 등의 '구전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논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김광조의 『조선의 민속설화』(2015)는 민속학 연구자 김광조가 구전문학의 연구 시각과 관점, 영역을 재고할 것을 새로이 제안하는 것으로 '구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저작이다. 조선문학으로서 구전문학 연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민속학적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측면에서 설화의 역사와 작품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북한에서 ‘구전문학’에 관한 연구가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학문 영역의 전제와 지향을 투영하며 호출되어 온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추후 1950-60년대와 2000년대 후반 사이 연구의 초점과 대상이 변화한 양상과 그 주변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북한, 북한문학, 조선문학, 조선민속학, 구전문학, 민속설화, 김광조

1. 들어가며

북한에서 ‘구전문학’ 연구는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북한 최초의 문학 통사로 알려진 『조선문학통사』(1959)¹⁾는 조선 문학을 원시부터 시대에 따라 장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각 장마다 ‘시가’와 ‘산문’, 간혹 ‘극문학’을 포함한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때문에 이 시점에 ‘구전문학’을 별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시적 시기 문학의 특징으로서 문학 발생의 밑천이 된 ‘인민 구전 작품’의 역할을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는 대목²⁾이 발견된다. 이후 ‘구전문학’이라는 용어로 개별 영역의 개론서가 출간된 것은 1960년대 고정옥의 『조선구전문학연구』(1962)³⁾부터인데, 이후 장권표,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 상, 도서출판 화다, 1989.

2) “그들이 이러한 아름답고 연마된 인민 구전 작품들에서 예술 창조적 힘의 거대한 영향과 감동을 받았으며 자기들의 이야기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여 보려고 지향한 데에 곧 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즉 고대 인민 구전 작품들이 서사 문학의 발생 발전에 준 위대한 공적과 영향에 대하여 반드시 말하여야 한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1989), 위의 책, 23쪽.)

3)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리동원 등의 학자들이 2000년대까지 조선문학의 측면에서 구전문학을 조망하는 이론적 논의를 진척시켜왔다. 2000년대 중반까지 리동원에 의해 구전문학 이론서가 발간된 바 있는데, 그 이후부터,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는 연구서나 학술서보다는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한 교양서로 구전문학을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진다.⁴⁾

*북한에서 간행된 '구전문학' 연구서 목록 가운데 현재 확인되는 것을 연대순으로 나열함.⁵⁾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리동원, 『조선구전문학개요(항일혁명편)』, 사회과학출판사, 1994.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조선의 민속전통 7: 구전문학과 민속공예』,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 2』, 문학예술출판사, 2005.
 리동원, 『민족설화의 세계』 1~4, 평양출판사, 2010~2011.
 김광조, 『조선사회과학학술집 527 민속학편: 조선의 민속설화』, 사회과학출판사, 2015.

4) 시리즈물로 출판된 북한의 대중적 설화집에 대한 설명은 김종근, 「북한의 구전설화에 대한 인식 고찰」, 『국문학연구』 22, 2010.의 2.2.장을 참조.

5) 본고의 논의는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파악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상황의 한계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조선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와 풍습」 22, 『민속설화』 1, 사회과학출판사, 2006.과 조선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와 풍습」 23, 『민속설화』 2, 사회과학출판사, 2006.을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평이 있었으나 자료의 소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원고를 제출하게 되었다. 해당 자료는 '민속설화' 개념에 대한 2000년대 이후의 사용 양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용에 따라 본고의 분석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위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전반에 걸친 것이다. 북한에서 출간된 모든 자료 상황을 선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남한의 자료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검색이 가능한 자료들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은 이 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제한된 수의 자료들에 근거한 것이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료와 동향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

오히려 근 10년간 구전문학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민속학 분야이다. 민속학적 측면에서도 1950년대부터 구전문학이 연구 대상으로 취급되어 오기는 했으나 민속학 연구자에 의해 개별 이론서가 간행될 만큼 전면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에 걸쳐 『민족문화유산』(과학백과사전출판사) 혹은 『조선고고연구』(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사회과학원출판사) 등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논문집 등에서 구전문학, 특히 설화 작품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이 발견되며, 2015년에는 ‘민속설화’라는 용어를 채택한 개별 이론서가 발견되어있다. 그런 점에서 김광조의 『조선의 민속설화』(2015)는 눈에 띄는 저작인데, 북한에서 ‘구전문학’ 연구의 중심이 이동하는 양상과 민속학 연구 경향의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북한의 민속학 연구의 흐름과 그 안에서 구전문학 연구의 초점이 변화해온 양상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장에서는 북한 내 ‘조선민속학’의 성립이 탈식민의 과제 아래 역사학·고고학의 하위 분야로서 성립되어 온 과정을 짚어본다. 그리하여 구전문학 연구가 민속학의 영역에서는 본격화되지 않다가 ‘조선문학’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양상을 파악한다. 이어 3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민속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을 짚어보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김광조의 저작이 가진 특이성을 고찰한다. ‘구전문학’ 연구의 초점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 민속학과 문학 연구의 관계와 그 현주소, 전망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민속학’의 성립과 ‘구전문학’ 연구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출판물들에서는 당시 북한 민속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가 과학적 학문 분야로서 '조선민속학'의 방법과 체계를 세우는 일이었음이 드러난다. 관련해서 '조선민속학' 연구의 타당한 방법론과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들이 『문화유산』, 『고고민속』 등 연구소 기관지의 각 권호마다 빠지지 않는데, 관련된 글들로부터는 당시에 구전문학이 민속학의 분명한 연구 대상임을 강조하는 언술들이 발견된다. 당시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장이었던 도유호가 1957년 『문화유산』에 기고한 「민족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과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당면 과업」이라는 글에서는 '향토성'을 담지한 예술 갈래의 하나로서 구전문학이 민속학 연구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예술에 향토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 회의 이후 우리의 인민 대중 속에서 오랜 전통을 가져 온 구전 문학이나 노래나 춤 기타 놀이에 관한 연구는 좀 더 학도의 관심사로 되어 왔다. 우리는 이 방면의 연구를 적극 추진시켜야 하겠다.”⁶⁾

그럼에도 2010년대까지 별다른 연구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민속학 분야에서 구전문학 연구가 우선순위에서 비껴나있었던 정황을 짐작케 한다.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조선민속학'의 성립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던 무렵의 민속학 분야 저술로부터 당시 북한 민속학 연구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경위를 따져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도유호의 글을 포함하여⁷⁾, 1950년대 후반 고고학 및 민속

-
- 6) 도유호, 「민족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과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당면 과업」, 『문화유산』 1957. 1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7, 7쪽.
 7) “우리는 그런데 먼저 조선 민속학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속학이 하나의 튼튼한 기초를 가진 과학 분야로서 진출하게 되지 않고는 조선 민속의 심각한 연구는 불가능하다.”(도유호(1957), 위의 논문, 6쪽)

학 연구소 기관지 『문화유산』에는 당대 북한 민속학이 당면한 과제로 ‘조선민속학’의 고유한 영역을 수립하여 그 대상과 방법을 확정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서술들이 다수 발견된다. 김일출은 도유호와 함께 북한 민속학의 기반을 조성한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데⁸⁾, 그가 1958년 『문화유산』에 기고한 「조선 민속학의 발전을 위하여」에는 당대 ‘조선민속학’의 성립과 발전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 설정된 것들이 요약되어 있다.

“돌이켜 보건대 조선 민속학은 력사학의 다른 분과들과는 달리 과학으로서의 력사가 매우 청소하다. 일제 통치 기간에 조선 민속학이 달성한 과학적 축적은 매우 미약하였다. (중략)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의 문화와 풍습은 일제의 조선 민족 문화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억압, 위축되어 개화 발전을 저해당하고 있었다.

영웅적 쏘베트 군대에 의한 8.15 해방은 민족 문화와 인민적 민속이 개화, 발전할 새로운 세기를 열어 놓았다. (중략)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오래 동안 우리 나라 정치, 경제 및 문화 영역에 끼친 해독적인 결과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토대에 적응한 민족 문화와 인민적 생활 풍습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급선무로 제기되었다.”⁹⁾

요컨대 ‘조선민속학’의 확립을 위해서는 첫째로 탈식민, 다음으로 소련 민속학의 방법을 근거로 한 과학적 연구방법과 체계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다. 이 가운데 탈식민이라는 과제는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민속학 연구의 방향에 관해 논하는 글에서는 빠지지 않는 것으로서 모든 민속학적 연구의 전제였다. 식민 통치기 일본 제국 혹은 어용

8) 주강현, 「황철산의 역사민속학 연구 -사학사상의 ‘역사과학으로서의 민속학」, 『역사민속학』 48, 2015. 참조.

9) 김일출, 「조선 민속학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 1958년 4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8, 17쪽.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시각과 성과에 대한 비판과 그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민속학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당시 민속학이 북한에서는 아직 생소하고 기반이 분명치 않은 학문 분야였고, 지난 시기의 참고할 만한 민속학 선행 연구는 모두 일본 제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었다는 진단에 기반한다.¹⁰⁾ 당대의 민속학 연구자들은 '조선민속학'의 개념과 범주를 확립하고자 할 때 국내의 선행 연구 성과 가운데 참고할 만한 유일한 것이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탈식민의 과제는 1964년 『조선민속학개요』를 서술할 방향을 논하는 『고고민속』 1호의 글에서까지도 언급되며 '조선민속학'의 첫 『개요』를 발간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1964년도에 민속학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중심 사업은 조선 민속학 개요를 집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집필 방향을 옳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불행하게도 지난날 악랄한 일제 어용학자들과 부르조아 민속학자들에 의하여 그것이 외곡되고 유린 당하였던 우리 민속 학계의 경우는 이와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구하고 찬란한 문화와 빛나는 생활 풍습의 전통을 찾아 내어 그것의 특성과 형성 역사를 밝히며 그것을 옳게 평가하고 옳게 계승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10) “일제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 통치자들은 저희의 식민지적 착취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하여 조선의 민속을 조사한바 있다. 그리고 어용 학자 중에서도 다소 연구 성과를 남긴 자가 있다. 그러나 그 성과들은 모두 일정한 경향을 가진 것으로서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 출발하여 조선의 민속학을 새로 수립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도유호(1957), 앞의 논문, 5쪽)
 “일찌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기구는 이른바 <조선 민속 조사 사업>에 그의 피뎠은 손을 뻗친 일이 있었다. (중략) 그러나 그들의 이른바 <조사>의 근본 목적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방편을 제공하려는 데 있었다.”(김일출(1958), 앞의 논문, 25쪽)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와 생활 풍습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가 집필하는 조선 민속학 개요가 어디까지나 이런 방향에서 서술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¹¹⁾

1957년 『문화유산』에 실린 아래 글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가 당시 탈식민의 문제를 민속학 분야의 핵심 문제의식으로 설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민속학 방면에서, 일제시대에 그들은 조선의 민속을 다소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그들의 식민지적 통치를 위하여 조선 사람의 풍습을 알아야 하겠으니 진행한 조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해방후 우리의 민속 조사는 진정으로 인민적인 각도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¹²⁾

이때 소련의 민속학은 북한이 식민주의적 민속학 연구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의 준거로 설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글에서 김일출은 조선민속학이 아직 “맑스-레닌주의적 역사학의 한 분과로서의 그의 전반적 체계를 구체적으로 확립”¹³⁾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 민속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체계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조선민속학은 ‘역사과학’의 한 갈래이며 ML주의적 ‘역사과학’으로서 그 과학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언급¹⁴⁾은

1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고고민속』 1964년 1호,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3쪽.
1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0월 혁명과 조선 고고학의 발전」, 『문화유산』 1957년 5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7. 4쪽.
13) 김일출(1958), 앞의 논문, 21쪽.
14) “조선 민속학은 우리 나라의 맑스-레닌주의적 력사 과학의 일부분이다. (중략) 조선 민속학은 우선 맑스-레닌주의적 력사 과학으로서의 그의 과학적 체계를 수립하여야

북한의 민속학이 나아갈 방향을 소련 민속학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관련해서 “민속학 각 부문 연구의 이론적 심화를 위하여 다른 한 가지의 필요한 일은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한 여러 형제 나라들의 맑스-레닌주의적 민속학 연구 성과를 도입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르쵸아 과학이 민속학을 인류학 또는 〈사회학〉의 한 분과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과 반대로 민속학을 역사 과학의 한 부문으로 개편한 것은 쏘련 민속학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이다.”¹⁵⁾와 같은 서술은 북한 민속학의 체제와 시각을 소련 민속학에서 빌어온 것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¹⁶⁾

관련해서 북한의 민속학은 그 독자적인 영역을 분명히 하기 전까지는 역사학·고고학 연구의 진척을 위한 부수적 학문으로 여겨져 온 것으로도 보인다.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의 과업을 밝히는 글에서 민속학 연구소의 과업으로 “조선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는데에 민속학이 이바지 할 바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¹⁷⁾라거나 “조선의 원시 시대에 관한 사료를 바로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민속학 전반에 걸친 기본 지식을 충분히 가져야 할 것이며(후략)”¹⁸⁾라고 언급한 대목은 민속학 연구소에 고고학 연구소의

한다.”(김일출(1958), 앞의 논문, 19쪽.)

15) 김일출(1958), 앞의 논문, 24쪽.

16) 북한 민속학이 소련 민속학을 준거로 삼은 정황은 소련 민속학계와의 직접적인 교류에 관한 기록과 기관지에 실린 소련 민속학자들의 번역 논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도유호는 앞의 논문에서 1956년 5월에 열린 레닌그라드 소련민속학자대회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 행사에 대한 소련 과학원 민속학 연구소장의 글이 『문화유산』에 번역되어 실리기도 했다. (에스. 뻬. 뫼스또브 저, 김신숙 역, 『쏘련에서의 민속학 발전의 총화와 전망~1956년 5월 레닌그라드에서 진행된 민속학회에서의 보고~』, 『문화유산』 1957년 2월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7.) 이후에도 현지조사 사업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현지의 글(게. 에쓰. 치따야, 『민속학에서 현지 조사 사업의 원칙과 방법』, 『문화유산』 1958. 5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8.)을 번역하여 실는 등 민속학의 연구 시각과 구체적인 방법의 준거로 소련 민속학을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 도유호(1957), 앞의 논문, 5쪽.

18) 도유호(1957), 앞의 논문, 5쪽.

과업으로 제시한 원시 시대 사료 발굴 사업의 보조적 역할을 부과한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에서 민속학의 기반을 닦은 연구자들이 역사학을 전공한 이들이라는 사실과¹⁹⁾ 민속학 연구 기관이 1949년 ‘정치경제학아카데미’의 ‘조선력사연구소’에서부터 과학원 창립 이후 ‘물질문화사연구소’,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로 분리되어온 역사²⁰⁾는 민속학 연구의 시작점이 실증적 역사 연구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당시 북한 민속학의 핵심 과제가 탈식민과 소련 민속학의 학습이라고 할 때,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민속학 연구소의 주된 사업이었던 농촌 인민 생활 풍습에 관한 조사와 광범위한 민속 유산 조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²¹⁾

농촌의 인민 생활 풍습을 조사하는 사업은²²⁾ 기본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풍습을 연구한다는 목적을 지닌 것이었으나, 한편으로 농촌 연구는 소련의 당대 연구 동향 가운데 두드러진 것으로 소개된 주제였으며 식민 통치 아래 민족적 문화가 상당 부분 퇴색된 도시보다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농촌이 인민의 전통적 풍습을 연구하기에 적절한 대상이라는 인식에 기반

19) “초기의 북한민속학은 주로 역사학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북한 민속학이 ‘역사과학으로서의 민속학’으로 일관되게 나가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주강현(2015), 앞의 논문, 11쪽.)

20) 강성운, 「북한의 학문 분류 체계」, 『북한연구학회보』 10, 북한연구학회보, 2006, 8쪽 참조.

21) “민속학 연구실에서는 과거 민속에서 시급히 소멸하여 가는 자료 수집에 노력함으로써 탈놀이를 비롯하여 재가승, 무속 등에 관한 1,000여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협동 조합 농민들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연구에서도 현저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민속학을 현실성에 보다 접근시키게 하였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조선 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 결정 실행을 위하여」, 『문화유산』 1958년 3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8.)

22)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1957년 글에서는 농촌 인민 생활 풍습의 연구가 민속학 연구소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민족 문화 유산의 옹호 계승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 1957년 6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7.)

한 것이기도 했다²³⁾.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민속 유산 조사 역시 기존의 '일제 어용 학자'들에 의한 조사 자료의 시각을 쇠신한다는 기본적인 문제 의식 아래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당대 소련 민속학의 중요한 과제로 지적 된 사실 역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⁴⁾

이처럼 주로 역사학·고고학적 관점에서 민속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민속학 분과 내에서의 구전문학 연구는 우선순위에 놓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글에서 도유호는 민속학 내 구전문학 연구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언급하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한 바 있는데, 민속학적 시각에서 구전문학을 다룰 연구 인력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이러한 상황은 50년대

23) "민속학자들은 지난 기간 대부분 농촌을 자기들의 공작 무대로 하였으며 농민들 속에 보존되어 있는 문화와 풍습을 수집하는 데 몰두하였다. (중략) 도시는 일제 식민지 략탈자들의 착취와 민족 문화 말살 정책으로 전래의 민족 문화와 생활의 아름다운 전통을 먼저 파괴당하였으며 식민지 이식 문화의 독소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유린당 하였다. 도시에 대비하여 농촌은 보수적인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또한 식민지 이식 문화의 침습을 적게 받은 데서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문화와 풍습을 계속 유지 보존 하고 있다. (중략) 따라서 사회주의적 개조 이전의 농촌에서 우리 나라 과거 문화와 풍습의 전통과 요소를 조사 수집하는 것은 민속학 연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전장석, 「민속학 연구를 더욱 현실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문화유산』 1958년 3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8. 12쪽)

24) "없어져 가는 이러한 풍습도 다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모조리 기록에 남겨 두고 연구하여야 한다. (후략) 사태가 그러한만큼 소련의 민속학자들은 없어져 가는 그러한 풍습을 조사하는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도유호, 앞의 논문, 6-7쪽)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급격히 발전 장성함을 따라 지난날의 략 후한 풍습은 급격히 사라져 간다. 이렇게 사라져 가는 풍습을 조사하여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소련의 민속학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한 허다한 략후한 민족들의 문화가 급격히 발전함과 아울러 사라져 가는 그들의 옛 풍습을 조사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거기서 또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잘 알고 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7년도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사업 총화와 1958년도 사업 전망」, 『문화유산』 1958년 1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8. 2쪽)

25) "우리는 여기서 구전 문학 기타 방면에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로 간부

이후로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민속학 관련 저널에서 ‘구전문학’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글을 달리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90년대 민속학 관련 총서의 ‘구전문학’ 파트를 민속학 연구자가 아니라 문학 연구자인 장권표가 맡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⁶⁾

이는 ‘구전문학’의 대상 자료를 연구하는 전통이 1950~60년대를 거치며 ‘조선문학’의 범주 아래 자리 잡아 조선문학과 민속학의 영역 구분이 뚜렷해진 정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구전문학’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folklore’의 번역어로서 ‘인민창작’ 개념을 통해 그것이 담지한 인민성을 강조할 것과 조선 문학의 일부로서 ‘구전문학’의 영역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구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²⁷⁾ 이후 ‘인민창작’ 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구전문학’으로 갈무리되어 주로 문예학적 관점에서의 발전 양상이 조망되어 온 양상은 구전문학이 애당초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민속학적 관점이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민속 연구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도유호(1957), 앞의 논문, 7쪽)

26) 민속학 분야에서 구전문학을 연구하는 일의 난점은 당시 소련 민속학계에서도 공유하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 과학원 민속학 연구소장 폴스또브는 구전문학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쏘련 인민들의 정신 문화 연구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는 우리 계획에 응당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구전 문학과 민속학과의 조직상 분리는 이 부문에서의 연구 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다. 금년에 라뜨비아 사회주의 가맹 공화국 과학원 민속학 및 구전 문학 연구소는 폐지되었으며 민속학자들은 렉사 연구소로, 구전 문학자들은 문학 연구소로, 음악적 민속학의 전문가들은 음악 대학으로 조동되었다. 쏘련 과학원 민속학 연구소로부터 구전 문학 연구실이 분리되고 세계 문학 연구소로 이관되었다. 그 결과 민속학의 유기적 부분으로부터 구전문학은 문학의 부속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구전 문학은 민속학적 방향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에스. 뻬. 폴스또브(1957), 앞의 논문, 83쪽)

27) 김영희, 「북한 ‘구전문학(口傳文學)’ 연구에 나타난 ‘인민’ 담론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한국고전연구』 35, 2016. 참조.

병존했던 정황과 그것이 점차 문학 영역으로 공고해져온 결과를 보여준다.

3. 2000년대 이후 민속학 연구 초점의 변화와 김광조의 『조선의 민속설화』

앞서 언급했듯 2000년대까지 구전문학은 조선 문학의 범주 안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1960년대에 처음 고정옥에 의해 개론서 『조선구전문학연구』(1962)가 출간된 이래로 장권표, 리동원 등의 학자가 주가 되어 구전문학에 관한 이론적 연구서들이 출간되었고, 이로서 혹은 대학 교재의 성격을 띤 구전문학 분야 저술은 2005년 리동원의 『조선구전문학연구』 2권이 마지막인 것으로 확인된다. 2010년대에 들어서 문학 연구자들에 의한 구전문학의 자질에 관한 이론적 논쟁이나 검토 등은 눈에 띄지 않는데, 60년대 이후 50여년 간 축적된 구전문학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당대에 요구되는 주제와 테마에 따라 구전문학 작품을 재구성한 대중적 결과물을 내놓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출간된 리동원의 『민족설화의 세계』 네 권은 이처럼 기존 구전문학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설화 작품들을 '민족성'의 측면에서 조망하여 소개한 대중서이다. 『민족설화의 세계』는 직전의 단행본으로 확인되는 『조선구전문학연구』 두 권과는 달리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서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교재의 성격은 지니지 않고, 중간 중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시조' 등의 개념을 '상식' 쪽지로 묶어 소개하는 등 문학 관련 분야 지식이 깊지 않은 대중을 대상 독자로 한 저술임을 알 수 있다.²⁸⁾

28) 리동원은 머리말에서 “매개 민족에게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있는것만큼 민족성을 무시하여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계

문학 분야에서 구전문학 연구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사상적 의미부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민속학 분야에서 새로이 설화와 전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러한 동향은 2000년대 후반부터 『민족문화유산』, 『역사과학』 등 고고학·민속학 관련 저널에서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는 신래현, 한룡옥 등 문학 연구자들이 간간이 글을 실었던 것이 확인될 따름이었다²⁹⁾. 1960년대에는 대부분이 ‘단군설화’의 역사성에 관한 논의들이며, 그 이후에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건국 시조 탄생 설화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는 식의 연구들이 민속학에서의 설화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2000년대 후반에 설화 작품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내건 논문들이 발견되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현재 확인되는 것 가운데 민속학 분야에서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문 목록이다.

김세준, 「고조선건국전설과 부여건국전설의 호상관계」, 『민족문화유산』 2008년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10~11쪽.

실현할 수 없다.”라는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하며 설화를 조망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민족성’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해서 『민족설화의 세계』 저술은 “설화유산을 수집 정리하여 출판하는 사업과 함께 그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6쪽) 나가야 한다는 요구에 응하여 나온 저작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관련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설화 작품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생활감정, 정직성과 근면성, 용감성과 희생성뿐 만 아니라 고상한 도덕품성을 깊이있게 반영한 민족설화유산”(5쪽)이라는 관점에서 선별된 것이다. “도서 『민족설화의 세계』는 지금까지 전하여오는 민족설화유산을 양식과 유형에 따라 자료적으로 묶어놓고 그 문예학적특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종과 형태, 갈래에 따르는 양상적고찰, 해부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 민족설화의 우수성과 풍부성을 펼쳐보이며 그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주려는 목적에서 집필하였다.”(6쪽) (리동원, 『민족설화의 세계』 1, 평양출판사, 2010.)

29) 신래현, 「천리마에 대한 설화」, 『문화유산』 1958년 6호,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과학원출판사, 1958, 29~36쪽; 한룡옥, 「설화」, 『고고민속』 1966년 2호,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과학원출판사, 1966, 809~810쪽.

- 오희복, 「고구려의 설화문학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09년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13~14쪽.
- 김세준, 「고구려의 천자건국전설이 신라소국의 건국전설창조에 미친 영향」, 『역사과학』 2009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49~51쪽.
- 김광조, 「《아기바위전설》을 통하여 본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 『민족문화유산』 2010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45~46쪽.
- 신운철, 「항일혁명투쟁시기 중국 동북지방에서 창조된 혁명설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 2011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12~13쪽.
- 김세준, 「고구려의 주몽전설이 가야의 수로전설창조에 준 영향」, 『역사과학』 2011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33~35쪽.
- 황철학, 「벽화와 설화를 통하여 본 고구려사람들의 시조신숭배관념」, 『조선고고연구』 2012년 2호,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사회과학원출판사, 2012, 41~42쪽.
- 김광조, 「고대설화유산에 반영된 민속」, 『조선고고연구』 2012년 3호,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사회과학원출판사, 2012, 28~30쪽.
- 김광조, 「전안례유래설화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12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44쪽.
- 김필영, 「중세 지리지를 통하여 본 설화유산의 분포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13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38~39쪽.
- 황철학, 「시조출생설화에 반영된 고구려시기의 음양사상의 발생」, 『민족문화유산』 2013년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15쪽.
- 오미선, 「고구려건국설화를 계승한 발해의 대조영설화」, 『민족문화유산』 2013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24~26쪽.
- 박영남, 「고구려시기를 반영하여 창조된 설화유산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14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14~15쪽.
- 리승철, 「우리나라의 첫 통일국가 고려의 수도 개성지방에서 창조된 지명전설 유산」, 『민족문화유산』 2015년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44~45쪽.
- 전광진, 「유적과 설화를 통하여 본 고조선과 고구려에서의 단군숭배관념」, 『조선고고연구』 2015년 4호,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사회과학원출판사, 2015, 17~19쪽.

이들 논문의 다수는 설화를 일종의 비물질적 형태의 역사적 증거로 취급하여 민족 계승의 연속성(고조선→부여, 고구려→발해 등)을 증명하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개중에도 설화 문학을 민속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눈에 띄기도 한다.³⁰⁾ 개중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은 김광조의 글인데, 「《아기바위전설》을 통하여 본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2010)은 아래와 같은 서술로 시작된다.

“문학예술은 일정한 역사적시대와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의 생활과 지향을 반영한다. 따라서 민족발전의 역사적과정과 특성은 그 기간에 창조된 민족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하여진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창조전승된 신화와 전설을 비롯한 설화들에는 정치, 경제, 문화, 생활풍습을 비롯한 민족생활이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³¹⁾

이러한 언급은 논문 첫머리에 인용된 교시(“문학예술은 민족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민족의 력사와 련결되어있습니다.” 《김일성전집》 44권, 241페이지)의 전제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김일성이 민족의 역사와 연결된 것으로 지직한 ‘문화예술’의 하나로 ‘문학예술’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설화를 민속학적 연구 대상인 ‘문화예술’로서 조망하여 민속학 분야에서 설화를 연구할 필요성과 연구의 전제를 간략하게나마

30) 오희복, 황철학, 박영남 등의 글이 그렇다. 이들의 글에서는 역사 기록과는 다른 설화의 특성을 고려한 흔적들이 발견된다. 오희복은 설화가 구술을 통해 전승되는 것이라는 이해 아래 설화 작품의 전승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짚어냈고, 황철학은 설화 서사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특정 시기 역사의 내러티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박영남은 사서나 지리서와는 다른 설화의 주제적 특성을 언급하며 이들이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서 다양한 변이형(‘변종’)을 지니고 있음을 중요하게 설명하였다.

31) 김광조, 「《아기바위전설》을 통하여 본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 『민족문화유산』 2010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45쪽.

밝히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출간된 『조선의 민속설화』는 그간의 고민이 누적된 결과물로, 민속학 연구자로서 '구전문학'을 다룬 이론서이다.³²⁾ 저자인 김광조는 문학 연구와는 관련이 없는 민속학 연구자로, 2010년대 이전에는 주로 전쟁 무기에 대한 연구물들을 남겼다.³³⁾ 2010년대에 들어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작성한 글 몇 편이 발견되는데³⁴⁾, 『조선의 민속설화』는 관련 분야 연구를 시작하고 5년여가 지나 내놓은 결과물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저작은 '조선사회과학학술집' 시리즈의 '민속학편'으로 출간된 것 중의 하나로, 약 600여 권의 시리즈 발간물이 확인되는 가운데 527번째 발간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사회과학학술집'은 2009년부터 발간되어온 것으로 확인되는데³⁵⁾, 철학, 역사학, 민속학, 언어학, 혁명역사학, 고고학, 문학, 경제학, 민

32) 해당 저작이 민속학 분야에서 '구전문학'을 다룬 첫 번째 책인지는 불분명한데, 각주 6번에서 언급했듯 2006년 발간된 『민속설화』 등의 저작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3) 김광조, 「임진조국전쟁시기 조선수군의 무기, 무장의 우수성」, 『역사과학』 17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9; 김광조, 「《충통등록》을 통하여 본 15세기 전반기 화약무기의 발전에 대하여」, 『역사과학』 2002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김광조, 「15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에서 화약무기들의 규격화, 표준화」, 『민족문화유산』 2005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김광조, 「최초의 연발사격무기 - 화차」, 『민족문화유산』 2005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김광조, 「비격진천뢰」, 『민족문화유산』 2006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김광조, 「고구려의 중무장기병 - 철기」, 『민족문화유산』 2006년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김광조, 「조선봉건왕조 전반기 무기무장에 대한 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315 역사학편 : 역사학연구논문집 12』, 사회과학출판사, 2010. 등.

34) 김광조, 「《아기바위전설》을 통하여 본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 『민족문화유산』 2010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김광조, 「고대설화유산에 반영된 민속」, 『조선고고연구』 2012년 3호,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사회과학원출판사, 2012; 김광조, 「전안례유래설화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12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35) 해당 시리즈의 1번 발간물은 김주철, 『도이칠란드고전철학의 인간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2009.로 확인된다.

족고전학 등의 분야에서 저술된 논문이나 저서를 발간한 것이다. 시리즈의 속성으로 미루어보아 각 분야의 학술적 성과를 모아 출간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둔 기획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출간 자체로 김광조의 해당 저작이 민속학이나 구전문학, 혹은 민속설화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학문적 위상을 지닌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조선의 민속설화』의 머리말은 민속학 분야의 연구서로 『조선의 민속전통』 7권을 언급하며 그 한계를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래와 같은 서술은 김광조가 민속학의 영역에서 설화를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설화가 민속학연구의 보조적 자료로 취급되었으며 설화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구전문학연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0년대초에 편찬된 《조선의 민속전통》 7(구전문학과 민속공예)에서는 민속설화라는 개념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설화를 구전문학용어로 취급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민속예술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설화를 민속예술의 연구대상의 하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민속학적으로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민속설화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³⁶⁾

잠시 『조선의 민속전통』(이하 『전통』) 시리즈에 관해 살펴보면, 총 7권으로 구성되어 각각 식생활, 옷차림, 주택과 가족생활, 노동생활, 민속명절과 놀이, 민속 음악과 무용, 구전문학과 민속공예로 나뉘어 있다. ‘민속전통’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를 묶어 개론서를 발간하는 기획에 구전문학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새인데, 7권의 구전문학 파트는 민속학 연구자가 아니라 문학 연구자인 장권표가 맡아 서술한 것이다. 『전통』의 구전문학 파트는 그의 1990년 저작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편)』(이하 『개

36) 김광조, 『조선의 민속설화』, 사회과학출판사, 2015, 6쪽.

요』)와 항목의 차이가 있으나 개별 항목에서의 서술의 큰 틀은 공유하고 있다.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편)』	『조선의 민속전통 7. 구전문학』
조선구전문학연구의 대상과 특성	설화
설화	1) 역사개관
1) 설화에 대한 개관	2) 신화
2) 신화	3) 전설
3) 전설	4) 민화
4) 민화	5) 동화
5) 구전동화, 구전우화	6) 우화
민요	속담
1) 민요에 대한 개관	1) 속담개관
2) 로동민요	2) 속담과 생활풍습
3) 사회정치민요	수수께끼
4) 녀성민요	1) 수수께끼개관
5) 세태민요	2) 수수께끼와 생활세태
민간극	구전문학유산의 계승발전
1) 가면극	1) 설화
2) 인형극	2) 속담
3) 화극	3) 수수께끼
4) 민속극	
속담과 수수께끼	
1) 속담	
2) 수수께끼	

목차 차원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는 『개요』에 포함되었던 서론격의 글과 민요, 민간극을 다룬 항목이 빠져있다는 것인데, 이는 『전통』이라는 시리즈물 기획을 고려한 편집으로 보인다. 『개요』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

용이 『전통』에는 짧은 머리말로 갈무리되어 있으며, 구전문학 중에서도 언어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것들을 ‘구전문학’ 파트에서 묶어 함께 취급하리라고 밝히고 있는데, 관련해서 민요와 민간극은 이미 ‘민속음악과 무용’ 편와 ‘민속 명절과 놀이’ 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구전문학’ 파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부분은 『개요』에서 설화와 속담, 수수께끼의 각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져와 저술 의도에 맞게 서술을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각론별 역사에 대해 개관한 뒤 작품을 소재나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는 식의 구성은 『개요』의 서술 체제와 일치하는 것이며, 실제로 항목별 서술 내용이나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 주제 구분 등의 내용 전반이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를테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설화’ 각론은 설화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개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신화와 전설, 민화, 동화, 우화 순으로 각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내용 전반은 물론이고 문장이 일치하는 대목들도 적지 않다.

<p>『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편)』 2. 설화 2) 신화 (1) 신화의 형태적 특성 도입부 서술</p> <p>신화는 설화의 가장 최초의 형태 로서 원시 및 고대 사회 그리고 중 세기초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적기 간에 걸쳐 창조전승되었다.</p> <p>우리 선조들은 신화를 창조하는 데서도 자기의 창조적재능을 보여 주었다.</p> <p>신화는 원시사회의 지배적인 설 화형태였다.</p> <p>원시사회에서의 신화의 창작과 발전은 후기설화의 발생발전의 모 체로 되었다.</p>	<p>『조선의 민속전통 7. 구전문학』 1. 설화 2) 신화 도입부 서술</p> <p>신화는 설화의 최초의 형태로서 원시 및 고대 사회 그리고 중세 초 기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적기간에 걸쳐 창조전승되었다.</p> <p>우리 선조들은 신화를 창조전승 하는데서도 슬기로운 창조적재능을 보여주었다.</p> <p>신화는 원시사회의 지배적인 설 화형태였다. 원시사회에서의 신화의 창작과 전승발전은 설화의 발생발 전의 모체로 되었다.</p>
---	--

다루는 작품도 기본적으로는 『개요』에서 중요하게 언급했던 작품들
을 그대로 검토하고, 거기에 덧붙여 몇 가지를 더 검토하는 형태에 가깝다.

『개요』의 '신화' 항목에서는 단군신화, 해모수신화, 주몽전설, 박혁거세
전설, 수로왕설화, 탐라국전설을 다루고 있는데, 『전통』에서는 해당 작
품들의 뒤에 신화의 형상을 설화들로 연오랑과 세오녀, 왕자호동과 락랑공
주, 절로 끓는 밥가마, 거센 물결을 자게 하는 저대, 거타지 등의 작품을
짧게 소개하고 있다.

한편 각론별 세부 항목 제목을 수정하여, 보다 민속학적 측면에서 유의
미한 용어를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지점들도 있다. 아래는 '전설'
항목의 세부 항목이 포함된 목차이다.

<p>『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편)』</p> <p>3) 전설</p> <p>(1) 전설의 형태적 특성</p> <p>(2) 반침략애국투쟁전설</p> <p>(3) 반봉건투쟁전설</p> <p>(4) 인정세태전설</p> <p>(5) 명승전설</p>	<p>『조선의 민속전통 7. 구전문학』</p> <p>3) 전설</p> <p>(1) 반침략애국투쟁전설</p> <p>(2) 착취사회에 대한 원한을 반영한 전설</p> <p>(3) 풍속과 결부된 전설</p> <p>(4) 역사유적유물에 깃든 전설</p> <p>(5) 명승에 깃든 전설</p> <p>(6) 자연물과 고장이름에 깃든 전설</p>
---	--

『개요』에서는 소재에 따라 ‘인정세태전설’, ‘명승전설’ 등으로 간단히 명명했던 것들을 ‘풍속과 결부된 전설’, ‘역사유적유물에 깃든 전설’, ‘명승에 깃든 전설’, ‘자연물과 고장이름에 깃든 전설’ 등으로 구분하여 작품이 다루는 대상을 세분화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그래서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고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민속전통』의 구전문학 서술은 문학 이론으로서의 성격과 민속학 연구서로서의 지향이 혼재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후자는 선명하지 않고 전자의 성격에 견인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짧은 머리말에서 구전문학을 민속학적 측면에서 고찰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구전문학은 (중략) 시대적 및 역사적 제한성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구전문학유산을 사회력사적환경과 민족생활풍습과의 관계속에서 고찰하여야 한다.”³⁷⁾), 이 역시 초점은 역사적 환경과 풍습의 관계에서 보는 ‘구전문학’에 있는 것이지 구전문학과의 관계에서 보는 민속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서술의 큰 틀을 조선문학 연구로서 구전문학에 관한 연구서에서 빌어온 것일뿐더러, 특별히 민속학

37) 김광조(2015), 앞의 책, 6쪽.

적으로 심도있는 이론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물도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1995년 장권표의 『전통』 서술은 당시 민속학 분야에서 '구전문학'이나 '설화' 등을 민속학적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만한 배경이 없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2015년에 간행된 『조선의 민속설화』(이하 『설화』)에서는 그 양상이 달라졌음이 나타나는데, '민속설화'라는 개념을 내세워 민속학의 측면에서 구전문학-특히 설화-을 새로이 연구하리라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조가 문학 연구와는 관련이 없고, 역사학이나 고고학과 연관된 민속학 연구자라는 점에서 『설화』는 민속학에서 구전문학 연구가 맞이한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실제로 머리말과 1장 '민속설화에 대한 일반적 리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조선문학으로서 구전문학 연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민속학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연구 방법과 시각을 세울 필요성이다.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과 생활속에서 창조되고 발전하여온 민속설화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풍습과 생활양식들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속학 연구에서 효과적인 자료로 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민속설화에 대한 연구가 일정하게 진행되었지만 구전문학연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필자는 도서 《조선의 민속설화》에서 원시시대로부터 근대까지 창조, 전승된 민족설화유산가운데서 민속설화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명하려고 한다.

첫째로, 조선민속설화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민속예술의 한 구성부분인 민속설화와 구전문학의 한 구성부분인 설화(신화, 전설, 민화, 동화, 우화 등)의 연구목적 및 방법론에서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³⁸⁾

38) 김광조(2015), 앞의 책, 4쪽.

‘민속설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1995년 장권표의 『조선의 민속 전통』 구전문학 항목의 한계를 언급하는 대목 역시 ‘구전문학’ 연구와는 전제와 주안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³⁹⁾ 『전통』에서는 “민속설화라는 개념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설화를 구전문학용어로 취급”⁴⁰⁾했다며, ‘민속설화’라는 개념은 21세기 이후 심화된 민속예술 연구 배경 위에서 “설화를 민속예술의 연구대상의 하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민속학적으로 연구한다는 의미에서”⁴¹⁾ 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해서 그는 ‘구전문학’의 연구 목적은 문학의 발생과 발전을 역사 단계에 따른 합법칙성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민속설화 연구의 방점은 문학이 아니라 ‘민속’, 즉 설화에 반영된 당대의 생활 풍속과 관습의 유래와 그 형성과 발전의 합법칙성이라고 설명한다. 설화 작품의 구분 역시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따르는데, 전자가 설화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그 발전 단계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민속설화’의 측면에서는 주제사상적 내용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리라고 밝힌다.⁴²⁾ 그런 점에서 『조선의 민속전통』은 민속학이 아닌 구전문학의 연구 방법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따라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민속설화들(무속설화, 성씨설화 등)이 취급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39) 다만 이때 ‘민속설화’라는 명명은 ‘민족설화’와 ‘민속설화’를 구분하고자 함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으레 ‘민족’과 ‘민속’ 예술의 여부는 보통 창조자와 향유자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되지만 설화는 창조자와 향유자가 모두 인민대중이기 때문이다. ‘민속설화’ 개념은 문학 영역에서 연구되는 ‘구전문학’과 그 한 갈래인 ‘설화’와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40) 김광조(2015), 앞의 책, 6쪽.

41) 김광조(2015), 앞의 책, 6쪽.

42) “필자는 민속설화에 대한 개념을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과 세태생활, 신앙생활을 반영하여 인민대중속에서 창조, 전승해온 인민적인 이야기라고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속설화를 민속예술의 견지에서 작품의 주제사상적 내용에 따라 분류하려고 한다.” (김광조(2015), 앞의 책, 10쪽.)

『조선의 민속전통 7. 구전문학』	『조선의 민속설화』
1. 설화 1) 역사개관 2) 신화 3) 전설 4) 민화 5) 동화 6) 우화 2. 속담 1) 속담개관 2) 속담과 생활풍습 3. 수수께끼 1) 수수께끼개관 2) 수수께끼와 생활세태 4. 구전문학유산의 계승발전 1) 설화 2) 속담 3) 수수께끼	민속설화에 대한 일반적리해 조선민속설화의 역사발전개관 1) 원시, 고대민속설화의 발생, 발전 2) 중세민속설화의 발전 조선민속설화의 주제사상적내용 1) 신앙생활을 반영한 민속설화 2) 미풍량속을 반영한 민속설화 3) 세태생활을 반영한 민속설화 조선민속설화의 일반적 특징, 의의와 제한성 1) 조선민속설화의 일반적 특성 2) 조선민속설화의 의의와 제한성

『전통』과 『설화』의 목차를 비교해놓고 보면 차이가 뚜렷한데, ‘민속설화’라는 범주 아래 내용 차원의 구분을 하고 있을 뿐 세부 갈래를 구분하는 것에는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은 『설화』의 목차 구분과 비교할 때 『전통』의 서술 체제는 구전문학의 종류와 그 세부 갈래를 구분하는 문학적 연구방법론을 근거로 삼고 있음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설화를 ‘민속예술’의 관점에서 조망할 때 중요한 것은 설화 작품 그 자체이기보다는 어떤 설화 작품이 어떤 시기에 귀속되는 것인지, 그래서 당대 사회 인민의 풍습과 관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민속설화의 유형 분류는 해당 설화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반영한 민속설화’, ‘미풍량속

을 반영한 민속설화', '세태생활을 반영한 민속설화'의 세 유형으로 민속설화를 구분한 것이다.

이처럼 김광조가 민속학 분야에서 설화를 다루는 것의 의미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에는 설화를 기존 민속학·고고학 연구의 부수적 자료로서가 아니라 민속학의 중요한 연구대상 가운데 하나로서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문학의 한 영역으로서 구전문학 연구와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천명하는 데에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 것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는 한편으로 김광조의 서술은 문학 분야에서 구전문학 연구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장인 '조선민속설화의 력사발전개관'에 서술된 설화의 역사적 발전 양상에서 원시설화의 최초 형태로 토테미즘 등의 신앙이 반영된 주문을 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차이점이나, 이처럼 앞서 소홀히 다뤄졌다고 지적한 무속·성씨설화 등에 관한 부분적인 언급을 제외하면 발전 단계별 시기 구분과 특정 시기에 두드러지는 설화 주제, 주요 작품 등에 관한 서술은 '구전문학'과의 특별한 변별점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테면 토템, 물활론, 마법 등의 신앙의 영향을 언급한 원시, 고대 시기의 민속설화에 관한 대목에서도 그러한 요소는 다만 저자의 설명으로만 제시되고 있을 뿐 작품의 구체적 면면을 통한 분석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대목 이후의 서술은 장권표의 『개요』나 『전통』의 역사 서술과 유사한 건국신화에 대한 소개로 이어지고 있어, 이론적 설명과 소개된 작품 사이의 연결성이 불분명하여 이러한 이론적 관점이 서술 전반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간혹 특정 작품에 반영된 풍속의 실제적 양상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민속설화'로서 이들 작품을 주목하리라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⁴³), 그럼에도 서술 전반을 작품의 '민속설화'적 성격으로 관통하기보다는 기존

‘구전문학’의 역사적 발전 체계 인식의 틀거리 내에서 그 민속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형태에 가깝다.

이러한 지점은 기존에 민속학 분야에서 ‘설화’ 연구를 해온 역사가 오래 지 않았고, 따라서 이 글에서 참고한 선행 연구서나 연구 대상 작품집 등의 대다수가 ‘구전문학’으로서의 설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점에서 김광조의 저서는 ‘구전문학’ 연구 초점이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적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민속학 분야에서 ‘민속설화’에 대한 연구가 어떤 독자성을 지니게 될지, 그리고 문학 분야에서의 ‘구전문학’ 연구와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나오며

본고에서는 북한에서 ‘구전문학’의 연구 초점이 변화해온 양상을 문학과 민속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통해 파악하고, 민속학 분야에서 ‘민속설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김광조의 『조선의 민속설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1950년대 후반 이후 조선민속학과 조선문학의 학적 영역의 구분이 이루어지며 ‘구전문학’은 주로 문학 영역에서 문학적 관점 아래 논의되어 왔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민속학 영역에서 ‘민속설화’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 문학에서 ‘구전문학’으로서 연구되어온 ‘설화’ 작품들을 민속학의 연구 대상과 방법론으로 고찰하리라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43) 역사 발전 개관에서 어떤 작품의 사료적 가치를 이야기하거나, 해당 시기의 풍속 유래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강조하는 대목들이 그렇다. 이를테면 고대 항목에서는 단군신화와 동명신화, 해모수신화 등의 건국신화를 소개한 뒤 ‘풍속유래를 반영한 설화’로서 공후인의 배경설화와 견우직녀전설을 언급하며 이들 이야기에 반영된 민속적 풍습의 흔적을 짚어내고 있다.

이미 밝힌 대로, 이 글에서는 남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자료와 한정된 맥락 안에서 그 변화의 작은 징후를 탐지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김광조의 저술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민속설화’라는 개념 아래 민속학의 연구방법으로 ‘설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강조된 의지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유의미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후 심화된 연구를 통해 김광조의 저술 주변의 맥락을 보다 상세히 따져보고, 1960년대와 2000년대 후반 사이에 연구의 초점과 대상이 변화해온 요인을 민속학 연구 영역의 안과 밖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선문학과 민속학의 체제가 구분되어 달리 발전되어 온 정황, 조선민속학과 소련 민속학과의 관계 양상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윤, 「북한의 학문 분류 체계」, 『북한연구학회보』 10, 북한연구학회보, 2006, 1~25쪽.
- 계. 에쓰. 치따야, 「민속학에서 현지 조사 사업의 원칙과 방법」, 『문화유산』 1958. 5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8, 62~72쪽.
-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1~348쪽.
- 김광조, 「《아기바위전설》을 통하여 본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 『민족문화유산』 2010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45~46쪽.
- _____, 「임진조국전쟁시기 조선수군의 무기, 무장의 우수성」, 『역사과학』 17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9, 34쪽.
- _____, 「《충통등록》을 통하여 본 15세기 전반기 화약무기의 발전에 대하여」, 『역사과학』 2002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50쪽.
- _____, 「15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에서 화약무기들의 규격화, 표준화」, 『민족문화유산』 2005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43쪽.
- _____, 「최초의 런발사격무기 - 화차」, 『민족문화유산』 2005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16쪽.
- _____, 「비격진천뢰」, 『민족문화유산』 2006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24쪽.
- _____, 「고구려의 중무장기병 - 철기」, 『민족문화유산』 2006년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22쪽.
- _____, 「조선봉건왕조 전반기 무기무장에 대한 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315 역사학편 : 역사학연구논문집 12』, 사회과학출판사, 2010, 224~341쪽.
- _____, 「《아기바위전설》을 통하여 본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 『민족문화유산』 2010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45~46쪽.
- _____, 「고대설화유산에 반영된 민속」, 『조선고고연구』 2012년 3호,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사회과학원출판사, 2012, 28~30쪽.
- _____, 「전안례유래설화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12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44쪽.
- _____, 『조선의 민속설화』, 사회과학출판사, 2015, 1~267쪽.
- 김일출, 「조선 민속학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 1958년 4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8, 17~27쪽.

김종근, 「북한의 구전설화에 대한 인식 고찰」, 『국문학연구』 22, 국문학회, 2010, 189~216쪽.

김영희, 「북한 ‘구전문학(口傳文學)’ 연구에 나타난 ‘인민’ 담론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한국고전연구』 3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303~373쪽.

도유호, 「민족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과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당면 과업」, 『문화유산』 1957. 1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7, 1~10쪽.

리동원, 『민족설화의 세계』 1, 평양출판사, 2010, 1~359쪽.

박영남, 「고구려시기를 반영하여 창조된 설화유산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14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14~15쪽.

에스. 뵈. 뿔스또브 저, 김신숙 역, 「쏘련에서의 민속학 발전의 총화와 전망~ 1956년 5월 레닌그라드에서 진행된 민속학회에서의 보고~」, 『문화유산』 1957년 2월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7, 80~86쪽.

오희복, 「고구려의 설화문학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09년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13~14쪽.

전장석, 「민속학 연구를 더욱 현실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문화유산』 1958년 3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8, 7~16쪽.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고고민속』 1964년 1호,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1~64쪽.

_____, 「10월 혁명과 조선 고고학의 발전」, 『문화유산』 1957년 5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7, 1~4쪽.

_____, 「민족 문화 유산의 옹호 계승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 1957년 6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7, 1~4쪽.

_____, 「1957년도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의 사업 총화와 1958년도 사업 전망」, 『문화유산』 1958년 1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8, 1~5쪽.

_____, 「조선 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 결정 실행을 위하여」, 『문화유산』 1958년 3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학원, 1958, 1~6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

- 사』 상, 도서출판 화다, 1989, 1~433쪽.
-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조선의 민속전통 7: 구전문학과 민속공예』,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1~147쪽.
- 주강현, 「황철산의 역사민속학 연구-사학사상의 '역사과학으로서의 민속학」, 『역사민속학』 48,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7~31쪽.
- 황철학, 「벽화와 설화를 통하여 본 고구려사람들의 시조신숭배관념」, 『조선고고연구』 2012년 2호,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사회과학원출판사, 2012, 41~42쪽.
- 황철학, 「시조출생설화에 반영된 고구려시기의 음양사상의 발생」, 『민족문화유산』 2013년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15쪽.

ABSTRACT

Changes in the Focus of North Korea's 'oral literature' research
and 『Oral Literature of Joseon』 by Kim Kwang-jo

Kim, Si-yeon

This article aims to trace the changes in the focus of “oral literature” research in the flow of North Korean folklore and literature, and reviews Kim Kwang-jo’s 『Oral Literatures of Joseon』 (2015) as a work that shows significant changes since the 2000s. North Korea’s research on oral literature seems to have not been in full swing in the 1950s and 1960s under the background that “Joseon folklore” field was established mainly from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perspectives. Since then, a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reas of “Joseon folklore” and “Joseon literature” became clear, the discussion of oral literature was transferred from folklore to literature and was mainly dealt with at the literary level until the 2000s.

However, since the 2000s, especially in the 2010s, the theoretical review of oral literature has not been revealed, but only popular publications that re-write the work are found, but there is a tendency to discuss oral literature such as tales and legends as research in the folkloric field. Among them, Kim Kwang-jo’s 『Oral Literatures of Joseon』 is a new proposal by Kim Kwang-jo, a folkloric researcher, to reconsider the perspective and area of research in oral literature, showing a new trend in oral literature. As Joseon literature, it suggests the need to study the history and works of folktales in an independent way, away from the boundaries of oral literature studies.

This trend shows that research on oral literature in North Korea has been called throughout the era, projecting the premise and orientation of various academic fields. Through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changes in the focus and target of the study

between the 1950s-60s and the late 2000s.

Key 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Literature, Joseon folklore, Joseon literature, oral literature, Kim Kwang-jo

논문투고일: 2022.07.17. 심사완료일: 2022.08.05. 게재확정일: 2022.08.08.
--